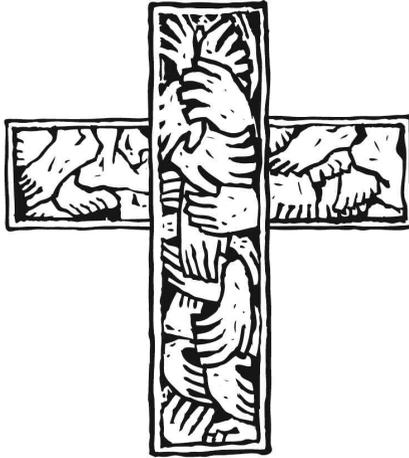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소서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창조절 4주 】

인도 1부 : 김재흥 목사
2부 : 신진식 목사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38. 예수 우리 왕이여 다 함께
 예배로의 부름 담임목사

▲ 경배의 찬송 32. 만유의 주재 다 함께

▲ 공동기도 다 함께

창조의 하나님, 한 주일 동안 한반도에 평화롭게 펼쳐진 창조의 풍경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열강들이 우리 민족에게 씌워 놓은 적대과 분단의 굴레를 떨쳐 내고, 평화와 통일의 아름다운 유산을 온 세계에 전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백두에서 한라까지 뿌려진 평화의 씨앗이 한반도를 넘어 온 땅에서 열매 맺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민족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기도드립니다. 명절이면 한국사회의 응달이 더 깊고 짙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에 드리운 욕심의 어둠을 걷어 내고, 울타리 안에서만 만족하는 명절이 아니라, 울타리 너머 이웃들과 함께하는 명절을 지내게 해 주십시오. 한가위 밝은 보름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걸리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 함께

▲ 위로의 말씀 시편46:1-2 인도자

▲ 교 독 문 48. 시편106편 다 함께

▲ 영 광 송 5. 이 천지간 만물들아 다 함께

2부대표기도 이은애 청년

2부응답송 찬양대

2부찬양 575. 주님께 귀한 것 드러 다 함께

▲ 성경봉독 행 5:33-42 I. 인도자
 II. 손상범 청년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 양 I. 믿음 안에서 하나 마중물 찬양대
 II.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청파 찬양대

말씀	외롭기로 작정하면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 함께
2부찬양	불편, 분노, 눈물, 어리석음의 축복	청년부
▲ 봉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 함께
▲ 봉헌기도		담임목사
공동체 소식		담임목사
▲ 평화의 인사		다 함께
▲ 보냄의 말씀		다 함께

인도자: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로마 황제가 아니라 갈릴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삶으로 증언하며 사십시오. 그 부르심에 기뻐하십시오.

다함께: 아멘. 세상의 거대한 이야기들에 파묻혀 사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의 향기로운 삶을 바라보겠습니다. 비록 외로울지라도 그 길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 찬양	635. 주의 기도	다 함께
▲ 축복		김기석 목사

주일 오후 집회	수요일 집회
쉽	쉽

■ 전교인 나들이를 준비하며 1 ■

김유정 시대의 역사

2018년 청파 가을나들이 장소를 ‘김유정역 일대’로 정했습니다. 나들이를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기 위해 김유정이라는 인물과 작품 그리고 그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 2회에 걸쳐 연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김유정(1908-1937)이 살았던 시기는 대부분 일제강점기입니다. 먼저 식민지 시기를 간단히 구분해서 특징을 설명하고, 식민지 시대 농민의 생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농민의 생활 모습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김유정 작품의 인물들이 대부분 농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문학평론가 장석주는 김유정의 문학에 대해 “그가 ‘이 시대의 풍상’으로 주목한 것은 가난의 문제와 유랑의 문제다. 그는 일제의 수탈과 억압 때문에 가난의 사슬에 묶여 신음하는 민중과, 어느 한 곳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인간 유형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 일제강점기의 시대구분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합니다. **1기-식민지 체제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1910-1919)**로 무단통치라는 공포정치와 함께 토지조사사업이 실시됩니다. 특히 조선인에게만 적용된 태형령은 정식 재판 없이 헌병경찰이 자의로 부과하는 것인데, 1912년에는 “피의자가 소리를 지르면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는다”는 야만적인 규정까지 만들었습니다. 구타와 고문을 전제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규정입니다. 그 명분은 ‘문명화되지 못한 조선인은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태형을 가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고 처벌 효과도 높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2기-지배 체제 정비와 경제적 수탈의 시기(1920-1930)**로 3.1운동 이후 일제가 소위 ‘문화통치’라는 유화 정책을 통해 민족운동의 분열을 유도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됩니다. **3기-대륙 침략을 위한 체제 정비와 전시동원 시기(1931-1945)**로 일제는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기에 강제 공출, 징용·징병, 일본군 ‘위안부’ 등 식민지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었습니다.

2. 일제강점기 농민의 삶

1920년대에는 조선 인구의 약 80% 이상이 농민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80% 정도는 경작할 땅이 전혀 없거나 약간의 땅만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고 수확의 50% 이상을 소작료로 냈습니다. 인구의 3%가 경작지의 절반을 소유하였고, 그나마 가장 비옥한 토지는 일본인 차지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저곡가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쌀 가격이 낮아야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이 가능하고, 그래야 기술력이 떨어진 일본 제품을 국제 시장에서 싼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식민지 조선을 일본의 쌀 공급기지로 만들려고 하였고, 1920년대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은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토지를 개량하고, 농사 기술과 품종을 개량하는 등의 방법으로 쌀 생산량을 늘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은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밭을 논으로 바꾸고, 비료를 사거나 수리 시설 이용료를 지불하는 데 드는 돈이 더 많아서, 몰락하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늘어난 쌀의 양보다 훨씬 많은 쌀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면서 1인당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고창군의 인구 10만 4930명 가운데서, 하루 세 끼를 먹는 인구가 23.6%인데 비해, 하루 두 끼 먹는 인구가 45.2%이고, 하루 한 끼 먹는 인구는 31.1%나 되었다. 또한 이 중에서 쌀밥을 먹는 인구가 전체의 21.8%인데 비해, 잡곡을 먹는 인구가 48.3%이며, 잡곡에 풀잎을 섞어 먹는 사람이 25.5%이며,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는 사람이 4.6%나 되었다.(동아일보, 1924.10.21)

일제강점기 농민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은 조선 농촌에도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의 결과 쌀 단작화가 심해져 농가 수입 중 쌀이 차지하는 비중이 삼남 지방에는 1/2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1931년 쌀값은 1926년의 반 이하로 폭락했던 것입니다. 그 피해는 자소작 이하 빈농층에 집중되어 이들의 몰락을 재촉하게 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기고 늘어나는 빚을 건디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고향을 떠나 도시로, 국경을 넘어 낯선 땅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 마음으로 읽는 글 ■

불편, 분노, 눈물, 어리석음의 축복을!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불편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손쉬운 답변들, 반쪽 진실들, 그리고
피상적인 인간관계에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고
당신이 담대하게 진리를 추구하고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분노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불의, 억압, 착취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당신이 정의, 자유, 평화를 위해
피곤을 모르고 일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눈물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고통, 거부, 굶주림, 혹은 소중한 것들의 상실 때문에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흘리는 눈물로
당신이 손을 뻗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어리석음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음의 축복을 받아서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하는 일들을
하느님의 은혜로써 해 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느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아멘.

- 루스 폭스 (디킨슨 주립대학의 졸업식에서 드린 기도문)

▪ 현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현금

김근종 정옥영 김기철 김영란 김재흥 최희영 김종락 박영신 김준호 곽혜자
 김현동 오유경 김훈동 유경순 김희진 박홍재 남선옥 남윤경 노진래 최형경
 박재우 정충원 박준희 이기분 박창운 허정운 박태영 배강우 설규범 송인선
 신영옥 신현일 심해성 안미순 우경환 우순덕 유지은 윤미경 윤수진 윤정덕
 구성실 이국노 김민화 이부곤 이응석 이은경 이주영 오재영 이준림 이지하
 이치림 강상연 임고운 오재형 임승동 백혜숙 정영례 정재우 정현숙 최윤희
 하현일 한상균 허신열 허진영 현 진

감사현금

강은주 김성수 김영호 김익한 김인석 이선화 김인하 김창숙 김은종 김충실
 조아라 김태정 박기태 박지영 박승은 변종복 손이주 안미순 이고임 이상남
 이상도 이정은 황유빈 이종후 이한림 김명희a이현정 박재영 임설희 임채진
 이영희 장현희 전길남 정구봉 정용구 최형민 황경순 무명2

생일감사현금

이왕준 한준

녹색꿈현금

김종락 박영신 김희숙 박영림 우순덕 이고임 임승동 백혜숙 정효진 황현성
 이오복

▪ 집 회 안 내 ▪

예배	시간	장소	예배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대예배실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성서학당	13:30	대예배실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1:0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교회소식 ■

1. 청년주일 : 오늘은 감리교회가 정한 청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과 이 시대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점심 : 오늘 점심은 추석 관계로 준비되지 않습니다.
3. 수요집회 : 이번 주 수요 낮집회와 저녁성경공부는 추석 관계로 쉽니다.
4. 환경세미나 : 30일 오후 1:30 교육관에서 '은총의 숲 이야기: 아직도 가야할 길'이란 제목으로 환경세미나가 열립니다. 교회 설립 110주년을 맞아, 지난 8월에 환경부가 몽골 '은총의 숲'에 다녀왔습니다. '은총의 숲'에서 보고 느낀 것, 돌아와서 배우고 알게 된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5. 전교인 나들이 : 10월 14일 김유정 역 일대로 전교인 나들이를 갑니다.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용산에서 전용 전철을 타고 갑니다.
6. 신앙실천 : 소외된 형제자매에게 먼저 따뜻한 안부를 전해보십시오.

다음 주 설교 본문	야고보서 5:13~20
------------	--------------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1부	김기석	공동기도	인도자
	2부	이태후	김정민	조성일

9월	1부 영접위원	김종락	헌금위원	박영신
	2부 영접위원	곽권희 송형운 이용석 류형민 하미림 최승주		
	2부 헌금위원	하현철 이해령		

오늘 식당 봉사	(없음)		
다음주식당봉사	최경미 강금연 박윤숙 김선영 이오복 최영미 조장형 박재영		
오늘설거지봉사	(없음)	다음주설거지봉사	5여성교회
커피 판매 봉사	3남선교회	다음 주 주차봉사	조성일